

여수시, 포스트코로나시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앞장'

위생등급제·안심식당·입식테이블 설치지원 확대·덜어먹기 집기 보급



여수시가 코로나19와 국내·외 관광객 방문 증가에 대비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매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면서 음식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데다, 최근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음식점은 물론 개인의 위생 방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다.

여수시는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식문화 개선에 앞장섰다.

시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모범음식점 등을 일일이 방문 독려해 3대 실천과제 이행업소 150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개별 수저 집과 마스크 등을 배부하고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위생등급 지정업소 전년 대비 9배 증가...식품안전 고객 우려 불식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7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전년도 11개소에서 올해 102개 업소로 9배 이상 대폭 늘었다. 코로나19 차단,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시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위생등급제 인증을 위해 무상으로 위생수준을 진단, 보완사항을 알려주고 평가 시 필요한 물품을 지원 하는 등 전문가 사전컨설팅을 지속 실시한 것이 인증 확대에 한몫했다.

◆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음식점 소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대폭 확대

여수시는 종사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을, 영업주에게 청결한 위생환경을 조성해 주고, 외국인, 어르신이나 임산부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입식테이블 사업에 올해 9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대대적인 교체 지원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91개 음식점소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지원해 현재 전체 음식점소의 약 85%가 입식테이블 설치를 완료했다.

◆ 안심식당 지정으로 음식 덜어먹기 실천운동 확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외식피로 외식업체 경영난과 음식점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식당 활성화에 나섰다. 3대 실천과제인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올해 처음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활용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여수는 해안도시 특성상 생선회, 계장 등 수산물음식으로 타 지역에 비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다. 시는 식중독 조기차단으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중독조기

경보시스템'을 집단급식소 315개소에 구축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외식 관광객 유입과 최근 맛벌이 가정 증가로 인한 외식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전자출입명부 및 QR코드 인증 출입 정착

코로나19로 올해 6월부터 중점관리시설(중전 고위험시설)부터 일반관리시설(중전 중위험시설), 기타시설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출입명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수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식품위생업소를 주야간으로 방문하여 설치를 도와주고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다. 내년도에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시민과 지역을 지키기 위해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위생단체와 함께 민관협력 방역수칙 준수 홍보

여수시는 올해 1월 코로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13개 여수시 위생단체와 업종별 또는 전체 업종 간 위기대응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왔다. 위생단체 자율지도체계, 민관 합동 방역수칙 지키기 캠페인 전개 및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음식 물가정보 '여수맛' 앱 서비스 제공

여수시는 가격 자율경쟁 유도과 바가지요금 근절, 음식점 이용 불만 민원해소를 위해 '여수맛' 앱을 활용해 음식점 메뉴와 가격, 영업시간, 주차시설, 휴무일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800여개 업소가 '여수맛' 앱에 가입하였고, 현재는 1,000여 개로 가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시,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이끈다

국회서 포럼 개최... "세계 최고 기술 보유"

순천시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관·단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회 산하위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해서 송갑석 간사, 신정훈 의원과 순천을 지역구로 둔 소병철 의원, 서동용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소재·부품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

한금속재료학회, 한국재료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와 산업부,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주관했다.

포럼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자동차용 판재를 생산·공급하고 있는 순천시 해룡산단을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의 허브로 조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

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소재·부품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일 한국기계부설연구소에서 독립연구원으로 승격한 한국재료연구원은 마그네슘 합금 개발 등 국내 마그네슘 소재의 선두를 이끌고 있으며, 이번 글로벌 마그네슘 연구센터 구축을 주도하면서 국내 기업 기술지원은 물론 해외 기관과 연계를 통한 상용화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백운산자연휴양림 임시휴장키로

실외 프로그램 이용인원 제한

광양시는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11월 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백운산자연휴양림을 임시휴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휴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지역 내에서도 잇달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전라남도 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 조치에 따라 결정됐다.

여가에 따라 휴양림 내 숙박시설, 목재문화체험장 및 실외 프로그램 운영이 중지되며, 생태숲 탐방 등 실외 프로그램은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부분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예약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해 이용금액을 전액 환불하고, 이후 코로나19 안정 추이에 따라 정상운영 여부를 검토해 별도로 백운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예총, 보성예술문화 청소년 예술제 비대면 개최

(사)한국예총 보성지회(회장 서정미)가 주최·주관(보성군, 보성교육지원청 후원)하는 "제2회 보성예술문화 꿈나무육성 청소년 예술제"가 12월 2일 비대면으로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보성군의 초·중·고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 향상 및 지변 확대와 지역 예술문화의 발전과 육성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개최되어 2회차를 맞이하였다.

문예창작 분야, 공연 분야 2개 분야로 11월 9일부터 접수 받기 시작했으며, 다음달 2일 당선작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비대면으로 전시·경연될 예정이다.

우수 개인과 단체에는 보성군수,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보성군의회 의장, 문화위원장, 보성예총회장 등의 상장이 수여된다.

보성예총 서정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보성군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 활력, 물결

코로나19 방역에
임대료 인하
적한 임대인
의남2지구 상인회

